

Smith 사상으로 바라본 정부의 역할, 그리고 그 의미: Locke의 자유주의 사상과의 비교

박희봉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영국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선도하고 있던 Locke의 사상체계와 비교하여 Smith의 도덕철학을 분석하였다. Smith가 어떻게 Locke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계승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포함시켰는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어떻게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를 유지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자유주의의 토대 하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그의 세계관과 인간본성에 대한 규정, 이에 따른 정부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그의 사상체계의 한계, 그리고 그의 사상체계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Smith는 Locke의 자유주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발전시켰다. 그는 Locke와 같이 인간본성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에 더하여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Smith 사상의 가장 큰 공헌은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사상체계를 연구한 이전 학자와 달리 일반대중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Machiavelli와 Hobbes 등 근대 서양 사상가들은 군주를 중심으로 국가와 정부체제를 논의하였고, Locke는 영국의 성공한 부르주아를 대상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논의한 반면, Smith는 당시 영국의 일반대중의 정치적·경제적 행위, 도덕적 기준을 중심으로 국가와 정부시스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주역을 일반대중으로 논의의 폭을 넓혔다.

주제어: Adam Smith, Smith의 정부관, 자유주의, 도덕철학

I. 서론

Smith(Adam Smith)는 1723년 스코틀랜드 커콜디(Kirkcaldy)에서 출생하여 1704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말년에 스코틀랜드 관세위원을 10여년 역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글래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에서 도덕철학을 강의한 철학자이다. 그가 살던 18세기 영국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부르주아혁명이 완수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이들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선거에 의해 내각책임제를 실시하였다. 과학지식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달성됨에 따라 생산기술이 혁신되고 식민지 개척으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부가 증대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일반대중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경쟁에 의한 전쟁과 대중의 빈곤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 시기 대학에서 도덕철학을 강의하던 Smith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였다. 그는 시장경제체제, 특히 유럽경제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저서인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잘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Smith하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자유 시장경제주의를 주장한 국부론의 저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학계에서는 그가 국부론을 저술하기 17년 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철학서를 먼저 저술하였고,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이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해왔다(구교준, 2010; 서동은, 2015; 조현수 2015; 김광수, 2000). 그렇지만 그의 철학이 아직도 당시의 정치적·경제적 시대상황과 도덕적 가치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종합적 사상체제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Smith의 사상체계를 Locke(John Locke)의 것과 비교하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Locke는 인간이 이기적인 본성을 지님과 동시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하면서 그의 철학체계를 전개하였다. 반면, Smith는 개인적인 인간을 합리적·이기적 본성을 보유한 존재라고 하는 Locke의 철학을 이어받으면서, 공동체 내에서의 행동에 있어서는 공정한 관찰자로서의 개인, 즉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Locke는 개인의 자유를 양도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하면서 국가와 정부라고 해도 이러한 정치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부여한 반면, Smith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을 Locke의 정치적 자유에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동시에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여 개인의 정치적·경제적 자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현실세계에서의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다.

이러한 사상적 차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영국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선도하고 있던 Locke의 사상체계와 비교하여 Smith의 도덕철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Smith는 어떻게 Locke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계승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포함시켰는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어떻게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를 유지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자유주의의 토대 하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그의 세계관과 인간본성에 대한 규정, 이에 따른 정부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그의 사상체계의 한계, 그리고 그의 사상체계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II. 인간본성과 세계관

Smith의 인간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Locke의 이론과 유사하게 출발한다. Locke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며,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그의 사상을 전개했다(Locke, 1980). Smith는 Locke가 제기한 자유의지와 이기적 본성, 문제해결 능력을 수정하여 받아들이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동감(sympathy) 능력이라는 도덕적 측면과 개인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사회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본성을 추가했다.

Smith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기적 본성,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Locke의 정치적 자유 및 이기심에 경제적 자유 및 이기심을 추가했다. 그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말한다(Smith, 2003a: 19).

인간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본성으로서 미덕도 악덕도 아니다(조현수, 2015: 206). 이러한 자기 사랑의 본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기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타인과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mith는 이와 같이 이기적인 인간이 타인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본성을 동감이라고 하며, 이것을 대부분의 인간이 받아들이는 도덕적¹⁾ 가치라고 하였다.

1) 도덕에 대한 한국인과 서양인의 기본적인 단어의 뜻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도덕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정의되어 있다. 반면 영어사전에 따르면 도덕(moral)은 옳고 그름의 원칙에 기초한 판단(concerning or based on principles of right and wrong behavior and the difference between good and evil)으로 정의된다. 즉 한국인은 도덕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기준으로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상정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존재한다. 이 원리들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며, 단지 그것을 지켜보는 즐거움 이외에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 연민과 동정이 이러한 종류의 감정이다.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하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Smith, 1996: 27)

아무리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 해도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자신과 같이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 자기가 속한 집단,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타인의 감정과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Smith는 동감(mutual sympathy)이라고 하며, 인간은 타인에 대해 동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동감을 공통적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Smith는 동감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개인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본성을 인간 내부에 공정한 관찰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관찰자의 동감이 관찰자들로 하여금 주요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주요 당사자의 눈으로 보게 하듯이, 주요 당사자의 동감 역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관찰자의 눈으로 보게 한다(Smith, 1996: 31).

공정한 관찰자는 한 사람의 감정과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 한 사람의 이기심을 많은 사람들에 의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작용을 한다. 이 공정한 관찰자는 모든 개인의 감정과 행위를 통제하여 개인의 극단적 이기심을 억누르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도덕적 기준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Smith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도덕적 일반적 원칙들을 의무로 생각하고, 이로써 사람들은 예의에 맞는 행위를 하고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Smith, 1996: 287-299). 요약하면 사람들이 공감능력과 공정한 관찰자를 공통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사회적인 도덕적 원칙으로 확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원칙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기 한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행위에 동감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연민을 느끼게 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을 비난하고 선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명예를 부여하기도 한다(조현수, 1998: 27-28).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동감능력으로 인해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극단적 이기심을 자중하고 자유롭게 도움과 협력

인식하지만 서양인은 도덕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원칙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 원칙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는 Smith의 사상을 다루는 까닭에 도덕의 정의를 영어의 'moral'로 정의하며 전개한다.

을 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Smith가 인정한 바와 같이 이러한 도덕적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Smith는 이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비록 소수이지만 개인적인 도덕적 기준에 따라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이다. Smith는 이 같이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른다(도메 다쿠호, 2008: 96). 이들은 지혜를 실천하는 까닭에 마음의 평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다. 인간의 이기심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니 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도덕적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기적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도덕적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우이다. Smith는 이 유형의 사람을 연약한 사람으로 부른다(도메 다쿠호, 2008: 96). 이들은 때때로 자신의 단기적 이익에 부합되지 않지만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자신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도덕적 원칙을 받아들인다. 더욱이 이들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허영심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타인을 돕고 이로써 타인의 존경과 감탄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Smith, 1996: 288). 따라서 이들은 허영심이라는 이기심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행동을 자제하고 칭찬받을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렇게 자신의 단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익까지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Smith는 자신이 주장하는 도덕적 원칙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간본성에 사회적 관계를 추가한다. 인간이 극단적 이기심을 억제하고 동감을 통한 도덕적 삶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하여 걱정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만약 우리가 사회를 떠나 홀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추함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할 것이다(Smith, 1996: 208).

Smith는 인간이 홀로는 살 수 없고, 홀로 살아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기적 삶, 행복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무인도에서 혼자 성장한 개인에게는 자아 자체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구교준, 2010: 34). 혼자서는 자아가 형성될 수 없기에 행복을 인지할 수 없다. 자아의 형성과 행복의 인지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가능하다. 이기심의 충족 역시 사회생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 없이는 인간적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은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만이 공존공생을 모색할 수 있다. 혼자서는 가난을 면할 수 없고, 부와 지위를 추구할 수 없다. 더욱이 인간은 분업을 하여 자신이 잘 하는 일을 하고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모든 인간은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간 도움과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타인과 일을 나누어 수행해야만 한다.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야 개인의 부와 행복도 추구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의 이기적 행동의 조화로 인해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이다.

Smith는 이렇게 이기적인 자유의지를 지니고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이 타인에 대해 공감을 갖는 도덕적 원칙을 따를 때 사회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사회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 개인은 그가 지배할 수 있는 자본이 가장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사실 그가 고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는 오히려 필연적으로 그로 하여금 사회에 가장 유익한 사용방법을 채택하도록 한다(Smith, 2003a: 549).

Smith는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을 위한 행위가 전체 사회의 효율을 달성한다고 하였다. 타인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가 사회적으로 조정이 되면 사회 전체의 효용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행동의 사회적 조정과정은 분업, 교환, 경쟁 등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을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일을 할뿐이다. 개인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극히 일부분을 만족시킬 뿐이다. 개인은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다(Smith, 2003a: 28). 이렇게 시장에서 자신이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교환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이 잘 하는 일에 매달려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개인 간의 분업이 성립된다. 특히 잘 사는 국가일수록 이러한 분업이 더 잘 이루어진다(Smith, 2003a: 14). 한편 개인은 분업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더 행복

하게 살기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력을 더 싸게, 더 많이 제공해야 하고, 이로써 개인 간의 경쟁이 발생한다(도메 다쿠오, 2008: 154). 개인 간의 경쟁은 사회적으로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Smith는 이렇게 사회적 효용이 달성되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부자(富者)와 빈자(貧者) 간에 사회적 성과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분업에 의해 생산된 사회 전체의 성과물을 부자들이 모두 소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는 사회적 성과물 중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을 선택하여 소비할 뿐이고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소비하지도 못한다(조현수, 2015: 203).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필수품을 분배하게 된다는 것이 Smith의 주장이다.

셋째,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극단적 이기심을 추구하는 사람의 경우이다. Smith는 영국의 일부 상류층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Smith는 극단적 이기심을 발휘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세계의 어느 시대에서나 인간 지배자의 비열한 좌우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지주들이 지대의 총가치를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이 전혀 없어졌다. ... 이리하여 그들은 모든 허영심 중 가장 유치하고 천하고 지저분한 허영심과의 교환으로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권위를 점차적으로 상실해갔다(Smith, 2003a: 504).

Smith는 현실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 일부 지배자가 있기는 했으나 이들은 모두 타인에게 거부된 역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원칙을 따르지 않고 타인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삶은 파멸할 것이며, 이들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이들이 결국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다수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부 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Smith는 정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III. 정부관

Smith의 정부관은 Locke의 것과 비교해보면 그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Locke는 인간이 이기적 본성을 타고 났으나 타인과의 갈등의 문제점까지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Locke, 1980). 다만 전쟁상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

이 예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권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부권력이 강할 경우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Locke의 정부는 예외적인 상황만을 다루도록 정부의 권력과 역할을 한정시켰다.

Smith는 Locke의 이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즉 인간본성의 이기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의 필요성, 정부권력의 위험성, 그리고 정부권력의 제한 등 기본적인 방향에서 Smith는 Locke를 따르고 있다. 다만 Locke가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둔 반면, Smith는 모든 개인의 일상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였고, 개인의 범위를 부르주아 중심에서 일반대중까지 넓혔다. 그는 개인의 극단적인 이기심 발현을 영국의 상류사회를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군주들의 궁정과 상류 사람들의 응접실에서는 성공과 승진은 지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가진 동료들의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지하고 과시욕 많고 거만한 윗사람들의 번덕스럽고 어리석은 호의에 의존한다. 그곳에서는 또한 아부와 거짓이 공적과 능력을 압도하는 때가 많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아부하는 능력이 일하는 능력보다도 중시된다(Smith, 1996: 120).

Smith는 모두가 극단적인 이기심을 자제하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영유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물욕과 허영심을 채우는 일부 상류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18세기의 영국은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의 산업과 무역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정치인과 관료가 산업 엘리트와 정경유착 관계를 용인하고 있었다. 그가 지적한 것처럼 “동업조합(길드)의 배타적 특권, 도제제도, 그리고 기타 특정 직종에서 경쟁자의 수를 그 직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보다 적은 수로 제한하는 모든 법률은 비록 정도는 심하지 않다 해도 독점과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Smith, 2003a: 81)며, 정부가 산업의 독점과 과점을 용인하여 소수의 상류층만이 행복을 추구하는 영국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소수가 특권을 휘두르고, 게다가 정부가 또 다른 특권을 부여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비판하고, 소수의 특권을 억제하면서 일반대중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모든 구성원의 행복과 국가번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mith는 정의(justice)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세상에는 그 준수가 우리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지지 않고, 힘에 의하여 강제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분개의 감정을 촉발시키고 나아가 처벌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덕성이 있다. 이 덕성이 정의이다. 정의에 반하는 것은 곧 침해이다. 그것은 당연히 부인되는 동기에 기초하여 특정한에게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그것은 분개의 적절한 대상, 나아가 분개의 자연적 귀결인 처벌의 적절한 대상이 된다(Smith, 1996: 151)

Smith에 따르면 정의란 특정한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타인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데 따라 발생하는 분노의 힘에 의해 강제되고 처벌받게 하여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덕성을 말한다. 정의는 그가 강조하는 인간본성, 즉 인간의 이기심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적 측면의 지혜로운 삶 안에서의 질서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삶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즉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서 각 개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평한 관찰자들이 독·과점 등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분노하는 마음을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로 간주된다.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조정을 거쳐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증가된 사회적 효용은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소수 특수한 계층의 극단적 이익 추구를 통제함으로써 사회 전체적 효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효용과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Smith는 개인의 자유 보호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의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즉 약자를 보호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응징하기 위하여 사회의 위대한 파수꾼”(1996: 164)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이기심이 타인의 자유와 이기심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회 내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국가가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정의의 최종 판단은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공평한 관찰자의 몫이다. 즉 정의의 최종 판단자는 일반시민인 것이며, 일반시민이 마음속의 공평한 관찰자가 사회적 합의로써 만들어낸 법이 정의를 지키는 수단이고, 이 법을 수호하는 제도가 바로 정부인 것이다.

한편, Smith는 Locke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정부가 모든 시장과 거래를 감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치권과 관료가 상류층 부르주아와 결탁하는 정부의 도덕적 부패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정부 권력이 절대적인 경우 정부의 특정 이해관계자 및 산업에 대해 수행하는 다양한 우대 또는 억제정책이 오류에 의해 오히려 공정한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 권력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시민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는 공평한 관찰자에 기대한 것이다. 결국 일반시민의 도덕적 능력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범위가 주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Smith가 여러 곳에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에서 제시한 정부의 기능으로는 한 개인이 타인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첫째 사회를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 둘째 사회의 각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들의 불의·억압으로부터 가능한 한 보호할 의무 또는 엄정한 사법행정을 확립하는 의무, 셋째 일정한 공공사업·공공시설을 건설·유지하는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어느 개인이나 소수 개인들의 이익에 적합할 수 없다(Smith, 2003b: 848).

그는 정부가 첫째 국방, 외교, 안보 등 국가보호 기능, 둘째 살인, 절도, 폭력, 사기 방지 등 경찰 및 사법행정 기능, 셋째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사업 기능 등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세 번째 기능은 논란이 따른다. 다수의 이익보호를 위한 공공사업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한정하면 도로, 항만 등과 같이 민간에게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수행하여야만 일반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한정할 수도 있고,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중교육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구교준, 2010: 38). 보다 적극적으로는 공공성이 매우 크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에 유익하지만 사업 초기 위험과 비용부담이 커서 투자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자유교역, 경쟁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조치를 강구하고, 개인의 불완전한 지식이나 단기적 이해추구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억제하는 정책적 노력까지(김광수, 2000: 187) 포함시킬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일반대중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고,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이 일반시민의 도덕적 원칙에 의해 합의되어야 한다는 Smith의 주장은 다양한 논의를 가능케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반대중이 정부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Smith는 타인과 동감하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한껏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도덕적 원칙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됨과 동시에 전체 사회의 효용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덕적 원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개인의 이익추구 → 공평한 관찰자의 감독에 의한 개인의 도덕적 원칙 준수 → 타인의 이익보호 → 구성원의 분업과 경쟁 → 구성원의 이익 극대화 → 국가와 사회의 이익 극대화 → 국가발전 →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된 선순환구조를 유지·발전시키는 임무를 갖는다. 정부는 이 선순환구조의 위반자를 색출하고, 선순환구조가 유지·발전될 수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Smith의 세계관에 따른 정부관을 Locke의 것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Locke와 Smith의 사상 비교

관점	내용	
	Locke	Smith
세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시민의 자유가 억압되는 현실 · 권위적이며 강력한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손상시키는 문제 · 시민의 자유가 발휘되지 못하는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 · 개인, 기업 등 구성원의 이기적 행동 ·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
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자유로운 본성 · 합리적, 이기적, 평등한 본성 ·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 개인의 행복은 개인 노력의 결과 · 예외적으로 갈등과 반목, 전쟁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자유로운 본성 · 합리성·이기성 및 공정한 관찰자로서의 본성 · 상호간 공감 능력 · 상호의존적·사회적 존재 · 행복추구 및 사회적 효율성 추구 · 예외적으로 극단적 이기심으로 인해 타인의 이익 침해
부정적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적인, 강력한 정부 · 통제받지 않는 정부 · 주도적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롭지 못한 정부 ·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 발현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부 · 사회문제를 치유하지 못하는 정부
긍정적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기본권(자유, 행복, 재산권)을 보장하는 정부 ·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정부 · 중립적 심판관으로서 법질서를 유지하는 정부 · 최소한의 작은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도덕적 원칙을 따르는 정의로운 정부 · 사회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어 효율성이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정부

IV. 비판적 논의

Smith는 Machiavelli와 Hobbes, Locke 등과 같은 이전의 이론가들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며 자신의 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그는 Locke가 제기한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국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 관심을 두었다. Smith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공감능력이라는 도덕적 원칙을 따를 때 개인과 국가공동체가 동시에 발전 가능하다는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ith의 사상 역시 다양한 비판이 따른다. 그는 개인과 국가공동체 모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상태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된 사회라고 하였고, 자신의 극단적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는 것

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법에 따라 처분하는 역할을 맡긴다. 여기에서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도 관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사회적 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효용이 달성되기 어렵다. Stiglitz(2002)가 비판한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어 통제되지 않는 시장은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시장은 개인에게 올바른 행동지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정의의 심판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Smith는 개인의 공감 능력이라는 도덕적 원칙에 해결방안을 찾는다. 모든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평한 관찰자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공평하게 바라봄으로써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자신의 이기심을 절제하고 타인의 이기심을 인정하며, 모든 개인과 사회적 효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도덕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모든 개인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이 공감이라는 도덕적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인 공평한 관찰자가 존재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Rousseau(1964)가 지적했듯이 지배자가 피지배자에 대해 연민을 가지지 않고 멸시하기까지 한다(구교준, 2009: 252. 재인용). 그 이유는 개인은 타인에 대해 자기와 같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기 어렵고, 한 사람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이 갖는 시각은 결국 주관적 시각이다. 즉 Smith의 공평한 관찰자는 객관적일 수 없다. 개인의 공평한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오늘날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존재할 수 없다.

특히 Smith가 인정했듯이 정부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류층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힘없는 다수의 편에 서지 않고 능력 있는 소수의 편에 설 때가 더 많다. 정부가 정의롭지 않을 때 Locke가 제기한 바와 같이 법 위반자를 처벌할 능력을 가진 강력하고 권위적인 정부는 일반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의 극단적 이기심에 동조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Smith가 주장한 분업에 의해 모든 개인은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모든 개인은 자기만의 전문성 또는 맡은 바 임무가 있고, 어떤 개인도 모든 일에 대해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기에, 자신의 업무 이외의 일에 있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로써 모든 개인은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Marx(1977)에 따르면 분업이 심화될수록 개인 간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독립성 상실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자는 자본가에 의해 예속이 심화되고, 이러한 예속의 심화에 따라 다수 노동자의 정신적 황폐화(조현수, 1998: 35)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까닭에 Marx(1978)는 자본주의 폐지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진정한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mith가 주장한 경제적 평등은 Marx가 제기한 경제적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그가 말하는

경제적 평등이란 상류층이 모든 상품을 독점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Smith, 1996: 331).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경제적 부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Marx식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보유하면서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경제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의 시각에서는 당시 피폐한 생활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생활필수품이라도 확보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의 참혹성과 부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해서 평등을 추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Heilbroner, 1982). 부유층은 초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빈곤층에게 생활필수품이 제공되는 것을 평등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빈곤층에게 최소한 생활필수품이 제공되어 삶을 영위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공통적인 사회의 도덕성이 확립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받아들이기 어렵다.

V. 시사점

Locke의 사상은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하였으며, 그의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와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방편으로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에 희망을 걸었다(박희봉, 2016: 128-129). Smith는 Locke의 자유주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발전시켰다. Smith는 Locke와 같이 인간본성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더하여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Smith 사상의 가장 큰 공헌은 엘리트 중심의 한 사상체계를 일반대중을 중심으로 분석대상을 전환했다는 점이다. Machiavelli(1981)와 Hobbes(1962) 등 근대 서양 사상가들은 군주를 중심으로 국가와 정부체제를 논의하였고, Locke(1980)는 영국의 성공한 부르주아를 대상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논의하였다. 반면 Smith는 당시 영국의 일반대중의 정치적·경제적 행위, 도덕적 기준을 중심으로 국가와 정부시스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주역을 일반대중으로 논의의 폭을 넓혔다.

Smith는 그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도덕적 기준을 일반대중이 지킬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도덕적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특히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허여임과 오만한 사람들은 일반대중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1996: 460-461). 그는 부르주아 상류층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사회의 도덕성이 상실되는 것을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중까지도 지킬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의 도덕적 원칙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면 정치적·경제적 삶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기준이다. 누구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도덕적 원칙을 따르면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질 것이고,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

이 보유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는 사회가 되면 개인의 이익이 최대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도 번영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Smith의 공헌은 현실에서 일반대중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여 사상체계를 정립한 것이다. 특히 그는 개인의 효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성까지 확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justice)와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당시 Hobbes는 개인의 이기심 중에서 시민의 생명보장, 즉 안전에 초점을 두었고, 사회적 효용성을 무시했다. 그리고 Locke는 개인의 이기심 중에서 효용성에 초점을 둔 반면, 사회적 효용성은 분석에서 배제했다. 이에 반해 Smith는 Hobbes 및 Locke와 같이 개인의 이기심을 분석하면서 개인의 효용성과 사회적 효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즉 이기적인 개인이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업과 경쟁을 하지만, 이러한 분업과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용성이 극대화되고, 이러한 사회적 효용성은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공동체가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ith는 통치가 잘 되고 있는 사회에서 최하층의 국민까지도 전반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고 하였다. 즉 혼자 사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함께 사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인과의 협력으로 인해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 따라 분업과 경쟁, 그리고 양보와 타협을 해가며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이 보다 큰 행복을 누리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Smith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부도덕적 원칙 위반자를 제지하기 위해 정의(justice)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에게 정의란 일반대중 모두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사회적 효용성으로 확대하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의 일체적인 노력은 결국 사회적 효용을 달성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 모두에 사회적 효용의 혜택을 보게 된다. 개인의 노력의 결과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사회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Smith는 이 같은 정의(justice)의 개념으로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한다. 그는 정부를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개인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내에서 분업 및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으로 조정되어 결국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사회가 발전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도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개인의 장기적 행복과 국가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효용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반의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Smith의 입장이다. 한마디로 사회구성원들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한 분업과 경쟁이 보장될 수 있는 자유 시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오늘날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부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즉 특정인의 이익을 수호하는 않고 일반대중의 이익과 국가

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취해야 할 범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부분이다.

Smith는 정부가 어떤 행위를 수행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Smith에게 있어서 정의(justice)는 개인의 공감, 즉 각 개인 안에 존재하는 공평한 관찰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각 개인의 공감, 즉 각 개인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각 개인은 이 법을 따르며,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정부를 조직한다는 것이다. 즉 Smith에게 있어서 정부와 법은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조직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즉 Smith는 영국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염두에 두고 일반대중 모두에게 선거권을 확대하여 부여하는 현대식 민주주의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Smith는 상류층이 취해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물론 그는 상류층이라고 해서 일반대중과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상류층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타인을 위한 삶,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사회의 귀감이 될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더욱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요약하면, 상류층이라고 해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극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패망할 것이며, 일반대중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비난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 타인의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명예와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상류층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삶을 살라는 충고이다.

또한 Smith는 경제적 평등의 개념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공동체를 설계했다는 측면에서는 Locke와 같은 자유주의자이다. 그는 평등의 개념 역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즉 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유하고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 즉 기회의 평등은 인정한다. 반면, 상업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Smith, 2003b: 89-91) 결과로써의 경제적 평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의 경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으로 인해 국가공동체 전체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고, 이로써 가난한 사람에게도 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완전한 경제적 평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지 않고, 얼마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도덕적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결과적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이 개인의 행복과 국가공동체의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일반대중에게도 도덕적 공감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Smith의 이러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도 일관된다. 타인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이기적 행위를 공감의 영역으로 포함시킨 바와 같이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도 쌍방 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즉 자유무역은 양국가의 이익을 증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영국과 식민지인 미국 간에 있어서도 영국의 식민지에 대해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제반 간섭이 영국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는 등 도덕적 원칙에 입각한 자유주의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Smith의 도덕적 원칙에 입각한 자유주의는 현재 한국의 자유주의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자유주의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인정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주의로 인식되어 있다(구교준, 2010: 26). 따라서 신자유주의 또는 신공공관리론과 같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접근방법 역시 개인의 이기주의에 편승한 효율성 우선주의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자유주의의 위기는 Smith의 도덕적 원칙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유주의를 해석함에 있어서 극단적 개인의 이기심이 개인과 국가공동체의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측면만이 강조되고, 개인 간의 공감에 의한 도덕적 원칙 준수와 타인의 권리보장에 따른 국가공동체의 운영 등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Smith가 개인과 국가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방법을 정리한 국부론을 쓰기 17년 전에 도덕감정론을 저술한 까닭은 개인과 국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Smith는 국가공동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도덕적 원칙을 강조한데 더 나아가 상류층의 모범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혜택을 입고 있는 상류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혜택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그래야 일반대중의 공감을 얻어 국가공동체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다. 결국 한 국가공동체의 정의와 법, 정부의 역할은 일반대중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Smith의 입장에서는 상류층이 정부의 제지를 받지 않은 채 극단적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도덕적 역할을 회피하는 한국의 자유주의는 진정한 자유주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Smith는 자유주의 및 국가효율성 관점에서 급격한 사회개혁을 위험하다고 보았다(김병곤, 2011: 252). 개혁 역시 일반대중의 합의에 의해 실천되는 것이 도덕적 원칙인데, 급격한 사회개혁은 일반대중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또한 급격한 사회개혁은 일반대중이 생각하기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개혁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급격한 사회개혁의 수혜자는 사회개혁 추진세력 및 그에 가까운 집단이고, 일반대중은 수혜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음에 따라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Smith는 사회개혁에 있어서도 일반대중의 도덕적 원칙 및 일반대중이 혜택을 받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에서 국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였다.

≪참고문헌≫

- 구교준(2010). 행정학자의 시각에서 본 아담 스미스. 한국행정학보 44(1): 25-40.
- 구교준(2009). 아담 스미스와 지식경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작교 효율적인 정부에서 동적적인 정부로. 15(2): 237-257.
- 김광수(2000). 고전학파의 공공정책과 교육. 경제학연구 48(4) : 163-191.
- 김병곤(2011). Adam Smith의 도덕과 정의. 평화연구 19(2): 225-256.
- 김옥경(2003).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성론에 나타난 정의 개념. 사회철학 5: 219-249.
- 도메 다쿠호(2008). 우경봉 옮김. 지금 애덤 스미스를 읽는다. 도서출판 동아시아.
- 박희봉(2016).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철인정치에서 사회자본까지 철학자가 말하는 열 가지 정부 이야기. 책세상.
- 서동은(2015). 공감과 공공성의 윤리적 해석학: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성론을 중심으로. 해석학 연구 36: 1-30.
- 조현수(2015). 애덤 스미스와 공감의 정치. 사회과학연구 27(2) : 195-229.
- 조현수(1998). 도덕감성론과 국부론에서 나타난 아담 스미스의 정치이론적 의미에 관한 소고. 국제정치논총 38(2) : 23-42.
- 하호수(2014). 국부론의 통치에 나타난 자유주의 행정의 기원. 지방정부연구 18(3): 429-456.
- Heilbroner, Robert L.(1982). The socialization of the individual in Adam Smith.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4(3) : 427-439.
- Hobbes, Thomas(1962). *Leviathan*. edited by Michael Oakeshott. New York: Collier Books.
- Locke, John(1980).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edited by C. B. Macpherson. Indianapolis: Hacken Publishing company.
- Machiavelli, Niccolo(1981). The Prince. translated by George Bull. London: Penguin Books.
- Marx, Karl(1978).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edited by Robert C. Tucker. The Mark-Engels Reader, second edi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 Marx, Karl(1977). *Capital*, volume one. translated by Ben Fowkes. New York: Vintage Books.
- Rousseau, Jean Jacques(1987). *The Basic Political Writings*. translated by Donald A. Cress. Indianapolis: Hacken Publishing company.
- Rousseau, Jean Jacques(1964). *Emile*. edited by R. L. Archer. Barron's Educational Series, inc.
- Smith, Adam(1996). 도덕감성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박세일·민강국 공역. 서울: 비봉출판사.
- Smith, Adam(2003). 국부론(상): *The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 of the Wealth of nations*. 김수행 역. 서울: 비봉출판사.

Smith, Adam(2003). 국부론(하): *The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 of the Wealth of nations*. 김수행 역. 서울: 비봉출판사.

Stiglitz, Joseph E.(2002). *The Roaring Nineties*. Atlantic Report. October.

* **박희봉(朴熙峯)**: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Citize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of Korea, 1994),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조직, 행정문화 및 사회자본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저서로는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2009), 「좋은 정부, 나쁜 정부」(2013),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2014), 논문으로는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2016) “Is trust in government a short-term strategic value or a long-term democratic value? A case of three Nordic countries and three East Asian nations.”(2015) “해양수산업 조직변동의 이유와 논리”(2015) 등을 발표하였다. 주요경력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회장(2018)을 맡고 있다.

논문투고일: 2017.10.13 / 심사일: 2017.11.14 / 게재확정일: 2017.12.9